

# 불교계 '호스피스 봉사' 관심 절실

"죽음을 앞두고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 불교계에서 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웃종교의 적극적인 임종 봉사로 장례 도중 가족들이 개종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일본 불교가 장례의식을 전담하면서 교세를 유지하고 있는 사례에서 보듯, 임종간호와 장례봉사는 매우 중요한 종교의 의무이자 포교 방편임에도 불교계의 대응은 거의 전무한 실정.

이같은 상황을 인지한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은 5월 2일 '불교의 죽음관과 호스피스 교육'을 주제로 포교총연합회총회를 갖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정토사 관자재회 이사장 능행 스님은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 선정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지원기관 30개소 중에는 불교계 시설이 단 1곳도 없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전했다.

## 교계 지원 시설·자원봉사 교육 지원자 부족 사찰-병원 결연·종단 차원 홍보책 마련 필요

불교 호스피스 교육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대오)에서 5월 7일 '제2기 호스피스 자원봉사 교육'을 개강했지만, 46명의 교육생을 모으기까지 무려 3개월이 소요됐다. 복지재단은 원래 3월 중 호스피스 교육을 시작하려 했으나 교육생이 모이지 않아 교육을 5월로 미룰 수밖에 없었던 것.

복지재단이 홍보를 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봉은사·불광사·조계사·화계사·한마음선원 등 수도권 내 대형 사찰에 호스피스 교육의 필요성을 알리는 전화 안

내를 했고 홍보지도 제작·배포했다. 이들 사찰에서도 홍보를 적극 도왔지만 즉각적인 효과가 없었다. 급기야 원래 25만원으로 책정돼 있던 수강료를 8만원까지 끌어내리고 나서야 교육생 성원이 구성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호스피스 교육 관계자들은 "종단에서 현재 불교계 호스피스 교육 및 인식 수준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수요·공급의 욕구를 읽어내려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호스피스 교육 문제는 ▲교수 및 전문가 집단 연구 지원 확대 ▲병원 법당의 활동 영역 제공 ▲봉사자들의 봉사

욕구가 맞아 떨어져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종단 차원에서 선행돼야 한다는 것.

또한 병원봉사 참여도를 높여 호스피스 봉사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 호스피스 봉사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을 케어하는 것이라 다른 봉사와 다른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호스피스 봉사에 대해 막연히 겁을 먹거나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경우, 일반적인 병원봉사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병원에서 환자들과 대면하면서

'현실'을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호스피스 봉사에 대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호스피스 교육이 적극적으로 시행하려면 제도적 뒷받침도 절실하다. '1사찰-1병원' 결연과 지방사찰의 참여가 필요하다. 현재 수도권에는 14개 병원 법당이 마련돼 병원봉사의 거점이 되고 있는데 반해 지방에서는 다소 활동영역이 좁기에 이들에 대한 동기 부여는 종단 차원에서 활발한 홍보 및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박찬정 부장은 "불교자원봉사의 저변을 쌓는데도 10년이 걸렸다. 호스피스 봉사 및 교육 역시 시간이 필요하므로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종단과 사찰, 불자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내실 쌓기에 주목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강진 기자



7일 열린 한나라당 불자지원 당선자 초청 오찬에서 격려하는 지관 스님.

## “의정활동 모범 보이길”

지관 스님, 한나라당 불자지원 당선자 격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이 제 18대 불자국회의원 당선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먼저 한나라당 당선자들을 만나 불자다운 의정활동을 당부했다.

지관 스님은 5월 7일 낮 12시 63빌딩의 한 식당에서 한나라당 불자국회의원 당선자 초청오찬을 열고 "어려운 선거과정을 거쳐 당선된 것을 축하한다. 불자의원으로서 항상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

길 부탁드립니다"며 "불교관련 법령 정비 등 현안에 대해서도 잘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오찬에는 종단 주요 소임스님과 최병국, 주호영, 이계천 의원과 조문환 당선자 등 한나라당 당선자 20명이 참석했다.

한편, 지관 스님은 5월 9일에는 통일민주당 소속 18대 불자국회의원 당선자들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격려했다.

김성우 기자

**현대불교 영상사업 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 지 형성 및 설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영상사업 분야: 생활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 김봉환(前 KBS/동아방송총국, 강원대 영상학 강사)

**문의: 02-2004-8279**

### 北, 석왕사 복원사업 추진

6.25 한국전쟁 당시 일부가 소실된 북한 강원도 설봉산 기슭의 석왕사 복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5월 6일 보도했다.

통신은 "평양건설건축대학 연구자들이 석왕사를 복원하기 위해 건물 설계에 힘을 집중하는 한편 현지에서 나가 당대를 대표할 건물들의 터를 실측하고 시험발굴도 해 유곽을 확충했다"고 전했다. 김성우 기자

## “굶주리는 아이들 없었으면...”

JTS, 어린이날 맞아 빈민국 어린이 돕기 모금 캠페인

국제구호단체인 JTS(이사장 법륜)는 5월 5일 어린이날, 서울 명동 의환은행 본점 앞에서 2008년 JTS 연중기획 '모두 우리 아이입니다'를 슬로건으로 세계 어린이 빈곤 퇴치 모금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세계 빈곤어린이, 특히 아시아 지역의 굶주린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13개 도시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하루 1달라 미만으로 생활하는 인도 및 세계 빈민지역 어린이 돕기를 목적으로 한 행사다.

이날 캠페인은 방송인 김병조·아나운서 김미진씨의 사회로 지금까지 JTS 운동에 활발하게 참여한 노회경 작가·성준기 PD를 비롯해 연기자 배종옥·김여진·한지민·한상진·장희웅·서범식·박성웅·구본영씨와 아나운서 한석준씨 등 20여명 방송인의 참여로 진행됐다.



5월 5일 명동에서 열린 JTS의 어린이 빈곤 퇴치 모금 캠페인.

JTS는 이날 행사를 통해 모인 기부금을 모두 아시아 국가 어린이들의 기아·문맹퇴치와 질병치료를 위해 쓸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정토회 길벗모임'이 태안 기름유출 사건 현장주민들을 돕기

위해 JTS에 성금 50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JTS 후원=국민은행(예금주: (사)한국제이티에스) 086-01-0339-254, 문의 (02)587-8995.

김강진 기자

## 조계종 포살·결계법 본격 시행

결계 신고는 19일까지

조계종 산하 전국 사찰과 스님들은 이번 하안거 결계일인 5월 19일(음력 4월 보름)까지 스님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보고하는 결계(結界)신고를 시행해야 한다. 조계종은 지난 4월 24일 제27차 총무원회의를 통해 공포한 승가의 수행중풍 진작과 공의전통을 선양하자는 취지의 '포살 및 결계에 관한 법'에 따라 5월 10일부터 결계신고를 받고 있다.

이에따라 조계종 소속 스님들은

19일까지 소재 지역이나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에 결계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동국대와 중앙승가대의 소임자와 확인들은 결계현황보고서를 조계종 교육원으로 제출해야 하며,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거나 이미 출국한 스님들은 해외 출국신고서를 작성해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또 전국 각 교구본사는 이번 하안거 기간에 날짜를 정해 포살(布施: 참회법회를 시행하고 참석 스님들의 결계기록을 작성한 뒤 총무원에 보고해야 한다.

김성우 기자

## 고판화박물관 유물 7점 '강원도 문화재'로 지정

치악산 고판화박물관(관장 한선학)은 5월 6일, 전적 유물 7건 7점이 강원도 문화재로 지정됐다고 발표했다.

지정된 유물은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51호로 지정된 안심사판 <제

진언집> 1책, 유형문화재 제152호 덕주사판 <불설아미타경> 1책, 유형문화재 제153호 용원사판 <불설아미타경> 1책, 유형문화재 제154호 안심사판 <육주보경> 1책, 문화재자료 제146호 만연사판 <중간진언집> (상·하 1책), 문화재자료 제151호 <불정심다라니경> (상·중·하 1책), 문화재자료 제151호 <예념미타도량참> 5권 1책이다.

조동섭 기자

# 2008 한국불교학결집대회

일시: 불기 2551(2008)년 5월 17일(토)~18일(일) 장소: 동국대학교 문화관 주최: 사단법인 한국불교학회

### 모시는 글

거룩하신 붓다·다르마·쌍가, 세 보배님께 예배드립니다.

(사)한국불교학회는 2008년 제4차 한국불교학결집대회를 5월 17일~18일, 양일간 동국대학학술문화관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결집대회는 '불교의 세계화·세계의 불교화'를 주제로 하여, 15개국 160여명의 저명한 불교학자들이 참가하여 발표를 합니다. 10개의 부과로 나누어 불교의 종교적 실천성·철학적 논리성·과학적 합리성을 토론하는 담론의 광장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친 대회를 통해 한국불교의 연구 능력을 향상시킨 한국불교학결집대회는 제 4차 대회를 계기로 한국불교학의 국제적 위상을 증진하는 한편 불교도 간의 교류를 확대시키고 한국문화의 진면목을 세계로 알릴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을 모시고 불교학의 대추체를 진행하려고 하오니 두루 동참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불기2551(2008)년 5월 1일  
제4차 한국불교학결집대회장  
사단법인 한국불교학회 이사장  
이평래 합장

### 2008년도 제4차 한국불교학결집대회 조직위원회

- 대 회 장: 이평래
- 부 대 회 장: 배자스님, 김무생, 김선근, 양은용, 이만
- 조직 위원장: 혜원스님
- 기획 위원회: 이덕진, 유진스님, 장익, 김주호
- 총무 위원회: 김용표, 김결집, 송종갑, 김은희, 송영애, 석길남
- 연구 위원회: 박인성, 김호성, 김용현, 정병삼, 노원용, 김호기
- 편집 위원회: 고영선, 김재성, 신성현, 김무봉, 정영식, 조승미
- 학술 위원회: 신구택, 김법흥, 김용현, 진희스님, 유훈우, 김종욱, 이태승, 조극호
- 정보화 위원회: 최유진, 이효걸, 박수호, 김명우, 서재영, 김성희
- 재정 위원회: 원관중, 김성철, 안양규, 김영덕
- 섭외 위원회: 최성렬, 유재선, 황승민, 유승우, 송양호, 김치운
- 홍보 위원회: 종호스님, 차차석, 황수경, 화평스님, 하정남, 권시용
- 국제교류위원회: 김승용, 권옥배, 이기룡, 이용주, 조은수, 권우기, 하양자, 이항승, Sem Vermeersch, Santosh K Gupta, 이용현, 성문스님, 원영, 이연숙, 이자람, 정업스님, 조운호, 미노와 렌코, 허일범, 김천학, 가와에 유이오, 정원용, 김화, 박영환, 원필성, 김진우, Zhu Qingzhi, 최종석, 최종남, 안성득

### 후원

- 대한불교 조계종, 대한불교 태고종, 대한불교 천태종, 대한불교 진각종, 대한불교 판문종, 학교법인 동국학원, 대한불교진흥원, 은림불교문화재단, 보덕학회, 법당장학재단, 용문사승가대학, 동학사승가대학, 불명사승가대학, 인덕원, 소림사, 불국사, 법주사, 성불사, 도선사, 조계사, 길상사, 화계사, 봉은사, 불광사, 범어사, 통도사, 성심사, 화양사, 원정사, 장경사, 원각사, 내원정사, 고실정사, 삼정사, 동산반야회